

# '메이드인 코리아'가 .. 세계 최고.. .. 2005 .. CES .. 전시회 ..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2005 CES(Consumer Electronics Show)'가 1월 6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다. CES를 통해 세계 IT업계에 불고 있는 컨버전스 열풍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고

한국기업이 이미 세계 IT산업을 선도하는 위치까지 성장한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

## 절 정 에 달 한 컨 버 전 스



이번 전시회에서 눈여겨 볼만한 현상은 미리 예고된 가전 · 통신 · IT · 방송의 컨버전스에 소비자라는 개념이 급부상

했다는 것이다. 그간의 컨버전스가 산업별, 정책별, 서비스별로 일어났다면 앞으로의 컨버전스는 소비자의 편익에 맞게 원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담은 제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가 컨버전스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컨버전스를 주도하는 세력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자리였다. 또 기존 제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융 · 복합되면서 새로운 가전시장 창출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한, 지난해까지 시나리오 속에서만 등장하던 디지털 홈 전략이 제품으로 구체화돼 그 가능성을 확인 받은 자리이기도 했다.

## 2005 CES에 나타난 글로벌 트렌드 디지털TV를 통한 컨버전스

전체 출품품목의 약 70% 이상이 디지털 TV였을 만큼 이번 CES의 최대이슈는 디지털TV였다. 제품의 수뿐만 아니라 융복합의 매개체로 디지털TV가 자주 사용된 것이다. MS는 TV를 연계한 홈엔터테인먼트 기능이 한층 강화된 제품을 선보였고, HP는 디지털기기를 모두 컨트롤 할 수 있는 TV를 선보였다.

**디스플레이 대형화 바람** 최다 출품품목인 디지털TV와 디스플레이 제품은 컨버전스와 함께 대형화 추세가 뚜렷했다. 지난해까지 40인치 대가 주종을 이뤘다면 올해는 50인치 이상의 대형 제품이 대거 선보여 디스플레이의 세대교체를 예고했다. 국내 대기업들의 세계 최대 수준의 PDP TV뿐 아니라 65인치 LCD TV, 70인치의 DLP TV 등이

출품돼 대형화 바람에 일조했다.

**한국기업 경쟁력 인정** 이번 전시회에서 확인된 가장 의미있는 글로벌트렌드는 세계가 이미 우리의 IT기술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연설로 나선 MS 빌 게이츠 회장은 레인콤(대표 양덕준)의 MP3 플레이어 들고 나와 시연하였고, 인텔의 크레이그 배럿 회장 역시 국내 대기업의 제품을 설명하는 등 한국제품의 인기가 단연 돋보였다. 또 국내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수백 개 부스에서 국내 제품을 전시해 세계시장에서 높아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



## 국내 벤처기업들의 약진 두드러져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국내 벤처기업들이 대거 참가,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레인콤(대표 양덕준)은 세계시장을 타깃으로 '하이리버 H10'을 선보이며 별다른 부스 없이도 전시회 기간 중 가장 각광받는 업체로 부상하였고, 글로벌 셋톱박스기업 휴맥스(변대규)또한 DVD 리코더 기능이 내장된 26인치 디지털 LCD TV(모델명 LT2650)를 선보이며 관람객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레전자(대표 정문식) 역시 네트워크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한 신개념 PDP TV를 선보이며 컨버전스시대를 열어가는 업체에 동참하였다. 이밖에도 거원시스템, 시그마컴 등 국내 벤처기업이 한국 IT기술의 경쟁력을 뽐냈다.

이번 전시회에는 65개 국내 중소 · 벤처기업들이 72개 부스를 마련해 제품을 선보였으며, 행사기간 동안 총 5억달러가 넘는 상담 성과를 거뒀었다. 전시회를 통해 계약에 성공한 업체만도 40여 개에 이르며 계약 액수도 1억4000만달러를 웃돌 전망이다.